

한국 기업경기실사지수: 제조업 비용 완화로 반등했지만 수요 회복 아니고 8 월 전망은 되레 낮아져

2026.07.30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7 월 기업경기실사지수(전산업 CBSI)가 98.5 로 전월 대비 +0.8 포인트 반등하고, 소비자심리까지 합산한 경제심리지수(ESI)도 +1.1 포인트(97.9)를 기록했다. 헤드라인 수치만 보면 경기 체감이 살아나는 것처럼 읽히지만, 이번 반등의 실체는 훨씬 쪼다.

반등을 이끈 건 사실상 제조업 하나다. 제조업 체감지수가 +2.0 포인트(103.2) 오르는 동안 비제조업은 -0.2 포인트(95.2)로 오히려 뒷걸음쳤고, 서비스업은 -1.9 포인트(95.3)로 더 빠르게 악화됐다. 두 부문 간 격차는 8.0 포인트로 지난달(5.8 포인트)보다 오히려 벌어졌다. 그리고 그 제조업 개선마저 수요가 살아나서가 아니라 원자재 구입가격 체감이 11 포인트 급락(129)한 비용 완화 효과에서 비롯됐다. 비용이 줄어드니 채산성(+6 포인트)이 올라오고, 내수판매·매출·업황이 연쇄적으로 개선된 구조다. 수요 측 펀더멘털이 돌아선 것이 아니다.

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신호가 겹친다. 제품 재고 체감지수가 101 로 기준선을 넘어 재고 누적을 가리키고 있고, 수출 전망은 -1 포인트(96)로 낮아졌다. 무엇보다 전 부문에서 8 월 전망이 실적보다 낮은 구조가 고착돼 있다(전산업 갭 -2.0 포인트). 기업 스스로가 다음 달 둔화를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다. 경영 애로 항목에서 '불확실성'이 20.6%로 1 순위에 올라선 점도 질적으로 주목할 부분이다. 비용 완화가 마진을 일시 지탱하고 있을 뿐, 내수·서비스·전망이 가리키는 방향은 성장 약세의 지속이다.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인플레이션 고리는 약간 완화됐으나 성장 쪽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적절하다.

앞으로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. 하나는 8 월 원자재 구입가격 체감치다. 최근 국제유가가 7% 이상 다시 오른 만큼, 7 월의 비용 완화가 8 월에도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. 재상승이 체감에 반영되면 이번 제조업 반등의 유일한 동인이 사라진다. 다른 하나는 비제조업·서비스업의 연속 방향이다. 이미 두 달째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, 8~9 월 수치에서 추세가 확인되기 전까지 전산업 반등을 판단하기는 이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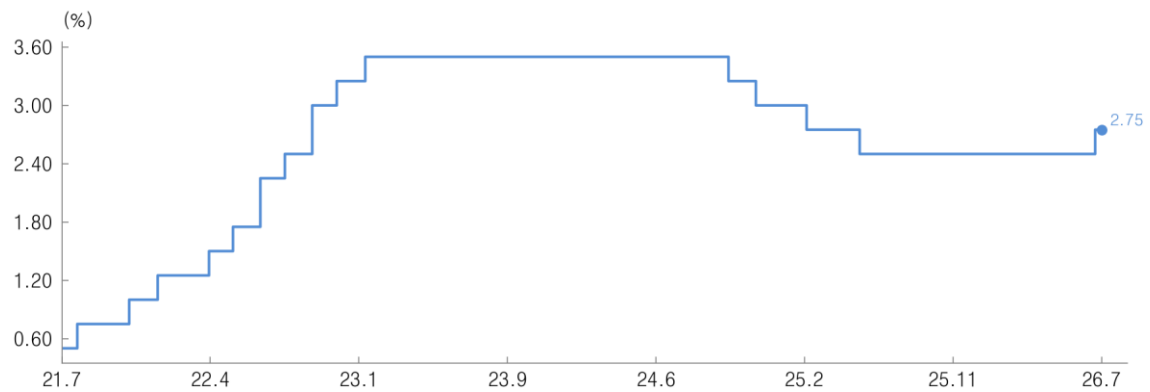
과거와 비교 (같은 분류 최근 분석)

발행일	핵심 메시지
2026-07-30 (이번)	7 월 전(全)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(CBSI)가 전월 대비 0.8 포인트 오른 98.5 를 기록했고, 경제심리지수(ESI)도 1.1 포인트 상승한 97.9 로 집계됐다. 숫자만 보면 기업 심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읽히지만,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림이 꽤 다르다. 이번 반등은 사실상 제조업 한 부문이 홀로 끌어올린 결과다.
2026-06-25	제조 수출의 반동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비제조·내수 기업심리가 뚜렷이 악화되고 있으며, 특히 다음달 전망의 급락(-2.4p CBSI, -2.7p 비제조)은 기업들이 성장 모멘텀 약세를 이미 선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.

7 월 기업심리 반등의 실체: 제조업 비용 완화 vs 비제조업 약세·8 월 전망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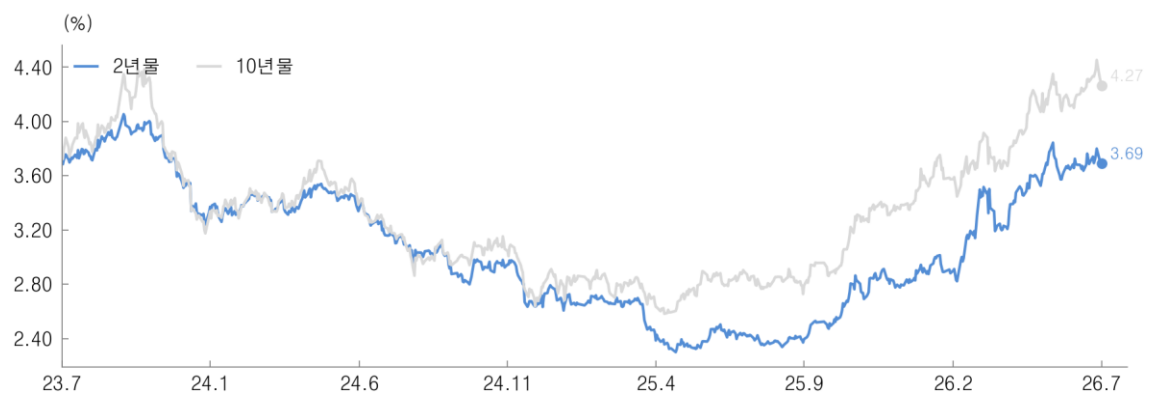
지표	7 월 실적	변화	8 월 전망	의미
전산업 CBI	98.5	+0.8	96.5	8 월 둔화 기업들 스스로 예상
제조업	103.2	+2.0	100.5	원자재 비용 완화가 유일 동인
비제조업	95.2	-0.2	93.7	내수부진 18.4%, 자금악화 지속
서비스업	95.3	-1.9	-	연속 2 개월 악화 추세
원자재 구입가격(제조)	129	-11	재상승우려	비용 완화의 일시성이 핵심
제품 재고(제조)	101	+1	-	기준선 초과, 수요 부족 신호
수출 전망(제조)	96	-1	-	외수 약화 신호
경영 애로 1 순위	불확실성 20.6%	+2.5%P	-	성장 약세 우려 확산

한국 기준금리 5 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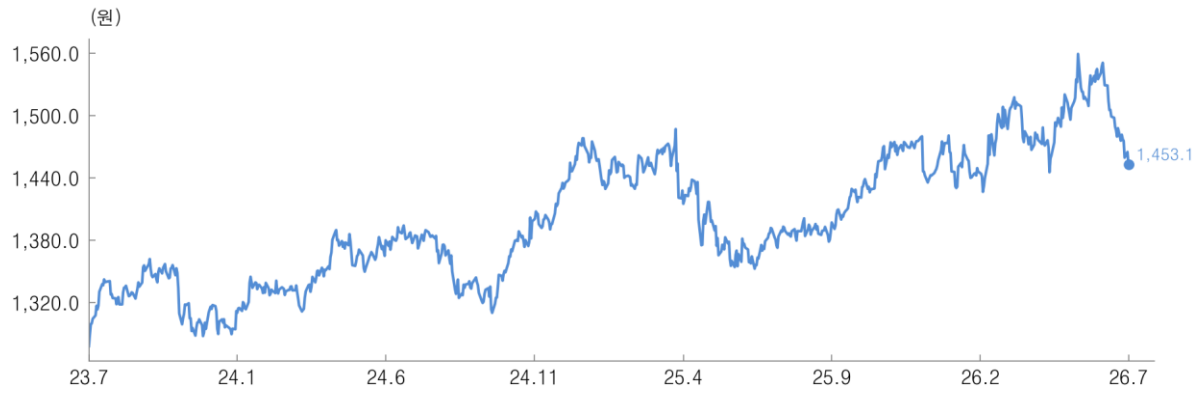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 ECOS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한국 국채금리 (2 년·10 년) 3 년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원/달러 환율 3 년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:조재운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자료는 인공지능(AI)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,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